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일 목요일 음 3월 10일 (2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8~9°C, 낮 최고 기온은 15~16°C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Gyeongju, Goseong, and Seokp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 for Jeju.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for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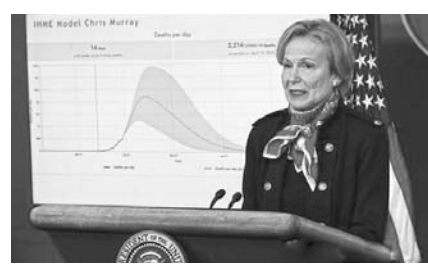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like food safety and UV index.

월드뉴스

美 24만 사망 예측...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

최악 시나리오 150만~220만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현지시간)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관련해 향후 2주가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호소했다.



코로나19 예측 모델 설명하는 벅스 조경관.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가올 30일간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생사의 문제"라고 밝혔다.

로나19 급증세가 이어지자 4월 말까지 한달 더 연장했다.

백악관 테스크포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면 10만명에서 24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모델을 소개했다.

백악관 테스크포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면 10만명에서 24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모델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10인 이상 모임 회피, 여행 자제 등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15일간 실행한다고 했다가 코

엔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회견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높게 치솟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4월의 줄다리기



이성웅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영차! 영차! 청춘 이겨라! 백군 이겨라!" 운동장에서 고사리 같이 작은 손으로 열심히 줄을 당기던 초등 학교 시절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청춘과 백군이 줄을 마주잡고 겨루는 줄다리기가었다.

시에 상대팀을 끌어오고자 온힘을 쏟았다. 옆에서 열띤 응원이 이어지지만 정작 줄다리기 선수들은 긴장된 상태에서 줄을 잡고 힘을 겨루니 응원의 열기를 느끼기 어렵다.

줄다리기에서는 줄을 잡은 선수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과 동

우나라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만물이 생동하고 사람들

의 활동도 많아지며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 특색을 살린 봄 축제들이 많이 열렸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지역마다 모든 구성원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는 힘들지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 견디고 이 땅에서 잘 살아왔다.

4월의 줄다리기를 잘 극복하여 생동하고 있는 주변 만물들과 늦봄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열린마당

작은 실천이 청정 제주를 지킨다



오봉식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운영과

우리 주변에서 하수관 맨홀에서 하수가 넘쳐 악취가 발생하고 주변지역을 오염시키는 일로 방송에 보도되곤 한다.

들어 하수관을 막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지난 3월초 대정읍에서 발생한 하수 넘침도 이와 같은 현상으로 발생한 것이고, 제주도 동지역에서만도 물티슈 등으로 인한 협자물을 매주 약 3t가량 수거해 소각 처리하고 있다.

봄철, 소각행위는 불법이다



강성원 제주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4월을 앞둔 요즘 만개한 유채꽃과 벚꽃을 보며 따뜻한 봄이 왔음을 느낀다. 하지만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봄철이기에 소방관들은 직업의 특성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없다.

는 화재의 가장 큰 핵심인 것이다.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조한 봄철이라는 조건 외에도 감골원의 전정·간벌·파쇄시기와 맞물리는 제주도의 영농 특성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서부소방서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관할 내에서 발생한 화재 중 35.1%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화재 발생 시간대는 11~17시 사이에 46.6%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화재의 원인으로는 불법소각으로 대표되는 부주의가 전체 원인 중 43.2%를 차지했다.

사실 모든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소각행위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도 당사자에게 큰 손해이지만 자칫 큰 화재로 이어졌을 때 초래하게 될 당사자 및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될 일임이 자명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Cheilsa (제일사) featuring a man in a suit, a table of membership benefits, and a map of the store location.

Advertisement for Jeju Green Bike (제주그린바이크) featuring Trek and Bontrager bicycles, a rider on a trail, and a storefront of the shop.